

## 다니엘서 - 번호 25

바벨론 쇠퇴의 베일을 벗기다: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 이르는 예언적 본문

Jeff Pippenger  
2023-12-20

5장에서의 벨사살의 몰락은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몰락으로 예표되어 있었다.

“바벨론의 최후의 통치자에게도, 그 첫 통치자에게 예형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처럼, 신성한 감찰자의 선고가 내렸다: ‘왕이여, ... 네게 말하노니; 나라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 4:31.” Prophets and Kings, 533.

느부갓네살은 칠십 년 동안 통치한 왕국의 시작을, 벨사살은 그 끝을 나타내며, 이로써 두로의 음녀(교황권)가 잊혀진 시기에 통치하게 될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미국)의 통치를 상징했다.

그 날에 두로는 한 왕의 연한대로 칠십 년 동안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두로는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이사야 23:15.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미국의 시작을 상징하고, 벨사살은 미국의 끝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은 공화주의 뿔의 시작과 개신교 뿔의 시작을 상징한다. 벨사살은 공화주의 뿔과 개신교 뿔의 끝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심판은 ‘일곱 때’였다. 느부갓네살이 이천오백이십 일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적용하는 데 윌리엄 밀러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그는 벨사살의 심판에서 상징되는 이천오백이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된 글은 이러하니, MENE, MENE, TEKEL, UPHARSIN. 그 해석은 이러하니: MENE; 하나님이 네 나라를 헤아려 그것을 끝내셨다. TEKEL; 네가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PERES; 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서 5:25-28.

벽에 쓰인 신비한 글에 대해 다니엘이 내린 해석 외에도, "mene"와 "tekel"이라는 단어는 무게의 단위를 가리키며, 또한 특정한 화폐 가치를 나타낸다(출애굽기 30:13, 에스겔 45:12). "mene"는 오십 세겔, 곧 천 게라이다. "mene, mene"는 그러므로 이천 게라에 해당한다. "tekel"은 이십 게라이다. 그러므로 "mene, mene, tekel"은 이천이십 게라에 해당한다. "Upharsin"은 "나누다"를 뜻하며, 그러므로 "mene"의 절반을 의미하고 오백 게라를 나타낸다. 이를 합하면 총 이천오백이십 게라가 된다.

화이트 자매의 마지막 언급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표되었다고 밝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공통된 심판을 강조하며, 두 심판 모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제시된다. 성경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한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하사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며, 그의 분노의 날에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며,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견고한 요새들을 허무시고, 그것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며, 그 나라와 그 방백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시며, 사방을 삼키는 불길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시며,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기쁨이 되던 모든 것을 죽이시고, 그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부으셨도다. 주께서 원수와 같이 되사 이스라엘을 삼키시며, 그의 모든 궁전을 삼키시고, 그의 요새들을 파괴하시며, 유다의 딸 가운데 애통과 애가를 많이 하셨도다. 또 주께서 정원의 초막인 듯 그의 장막을 폭력으로 걷어 가시고, 그의 모임의 처소들을 파괴하시며, 시온에서 엄숙한 절기들과 안식일이 잊히게 하시고, 격한 진노 가운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제단을 버리시고, 그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그의 궁전들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그들이 주의 집에서 엄숙한 절기의 날과 같이 소란을 질렀도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멸하시려 뜻하시고, 줄을 펴시며, 멸하시는 데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으므로, 토루와 성벽이 함께 슬피 울며 쇠약해졌도다. 애가 2:1-8.

여호와와의 진노는 "그의 진노의 격노"로 묘사되며, 그 진노는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처음" 격노와 "마지막" 격노를 언급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 진노를 행사하실 때 "펴셨다"라고 하신 "줄"을 지적한다. 그 줄은 열왕기하에서도 언급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며, 또 그의 우상들로 유다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측량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펼치겠고, 사람이 그릇을 닦아 뒤집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닦아 뒤집어 버리리라. 내가 내 기업의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과 겁탈의 대상이 되리라. 열왕기하 21:10-14.

하나님의 분노의 '줄', 즉 모세의 '일곱 번'은 먼저 북왕국(아합의 집) 위에 펼쳐졌고, 그 다음에는 유다 위에 펼쳐졌다. 레위기 26장에서 유래한 '일곱 번'을 가리키는 또 다른 성경적 용어는 '흠어짐'이다.

그때에 나도 분노로 너희를 거스르며 행할 것이요, 나, 곧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일곱 배나 징계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겠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으리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고 너희의 형상들을 찢어 내리며, 너희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 던질 것이요, 내 마음이 너희를 가증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향내도 내가 말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가운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리라.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흠고 너희 뒤를 따라 칼이 나아가게 하리니, 너희의 땅은 황무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리라. 그때에 그 땅은 황폐한 동안,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자기의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요, 그때에도 그 땅은 쉬며 자기의 안식년들을 누리리라. 그 땅이 황폐하여 있는 동안에는 쉬리니, 이는 너희가 그 위에 거주하던 때에 너희의 안식년들에 그 땅이 쉬지 못하였음이라. 레위기 26:28-35.

이방인들 가운데로의 흠어짐은 여호야김의 포로기 때 다니엘이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니엘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쉬며 "그의 안식들"을 누렸다. 역대하는 그 기간이 예레미야의 칠십 년이었음을 알려 주며, 다니엘은 그것을 9장에서 깨달았다.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그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바사 왕국이 통치하게 될 때까지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이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땅이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였다.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 내내 그 땅은 안식하여 칠십 년을 채웠다.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어,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한 글로 반포하여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하셨다.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그는 올라가라. 역대하 36:20-23.

"흠어짐"이라는 용어는 "일곱 때"의 상징이다. "일곱 때"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 느부갓네살의 심판은, 벽에 쓰인 신비한 글귀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나타난 벨사살의 심판을 예표했다. 벽에 쓰인 그 글귀는 이천오백이십에 해당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던 날수와 같고,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나타난 연수와도 같다.

느부갓네살의 심판으로 예표된 벨사살의 심판은 "일곱 때"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두 심판은 모두 "바벨론의 몰락"을 나타냈으며, 이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의 상징이다. 바벨론의 첫 번째 몰락은 니므롯의 탑이 무너졌을 때였다.

온 땅은 한 언어와 한 말을 썼다. 그들이 동방에서 이동하던 중 시날 땅의 한 평야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회반죽 대신 역청을 썼다. 또 그들이 말했다. "자,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어 온 땅 위에 흠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며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일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로 흠으셨고, 그들은 그 성을 짓는 일을 그만두었다. 창세기 11:1-8.

바벨의 심판, 곧 니므롯의 심판 때, 주께서는 니므롯의 반역자들을 "온 땅의 지면"에 걸쳐 "흠으셨다."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반역이 자신들이 흠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탑과 성을 세우려 한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 우리가 온 땅의 지면에 흠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언적으로 "이름"은 품성의 상징이다.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확립한 품성은 그들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는 열매를 보면 그 품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니므롯의 반역의 열매, 곧 그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은 탑과 도시의 건설이었다. "탑"은 교회의 상징이고 "도시"는 국가의 상징이다. 니므롯의 반역자들의 이름, 곧 그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었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도 표현된다.

바벨의 몰락을 밝히는 단락에는 "go to"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땅에 흠으시는 심판을 내리실 때이다. 첫 번째 "go to"는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던, 두 번째 "go to"를 위한 준비였다. 두 번째 "go to"가 표현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직접 살펴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세 번째 "go to"는 심판이었고, 두 번째 "go to"는 눈으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첫 번째 "go to"는 그들의 첫 실패를 대표하며, 예언적으로 "go to"가 세 번 언급된 것은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시험 과정을 가리킨다. 니므롯의 반역과 몰락에 관한 증언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여기서는 바벨론(바벨)이 처음으로 무너졌을 때 "흠으심"으로 나타나는 "일곱 때"라는 상징이 확인된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니므롯의 심판은 흠으심으로, 느부갓네살의 심판은 "일곱 때"로, 벨사살의 심판은 "이천오백이십"으로 나타났다.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은 4장과 5장으로 대표되는 예언의 선이 둘째 천사와 한밤중의 외침에 관한 늦은 비 기별임을 알려 준다. 그 선은 느부갓네살로 표상된 바벨론의 몰락으로 시작하며, 이는 영적 바벨론(교황권)이 처음으로 무너진 때인 1798년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그 선의 끝에서는 벨사살의 바벨론이 무너져, 일요일 법령 위기에서 시작되는 영적 바벨론(다시 교황권)의 점진적 몰락의 시작을 표시한다. 그 선의 시작에는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두 증인이 있고, 그 선의 끝에도 두 증인이 있다. 예언적 논리는 위대한 처음과 나중의 표식을 알아보고, 다니엘서 4장과 5장으로 대표되는 그 선에서 바벨론의 몰락이라는 주제가 네 증인에 의해 증거됨을 본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모형과 반모형의 관계를 마지막 때와 연결해 보면, 어린양 같은 모습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느부갓네살로 대표되고, 그것이 용처럼 말할 때는 벨사살로 대표된다. 예언적 관계에서는, 미국 헌법에 의해 이끌리는 공화주의의 별은 느부갓네살로 대표되고, 헌법의 전복은 벨사살로 대표된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슬기로운 처녀로, 벨사살은 미련한 처녀로 보게 될 것이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겠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교만한 군주가 자랑하던 지성이 그것을 주신 분에 의해 거두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는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오락과 자기 과시를 사랑하던 벨사살의 마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들을 지워 버렸고,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엄중한 심판을 불러왔던 것들과 유사한 죄를 범했다. 그는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했고, 진리를 알게 되기 위해 손이 닿는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위대하지만 어리석은 그 왕이 무심히 지나쳐 버린 것이었다.

오늘날 무분별하고 무모한 젊은이들이 처한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벨사살에게 그랬듯이 죄인을 일깨우실 것이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바벨론의 통치자는 부와 영예를 가졌고, 오만한 자기방종 속에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다. 그는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감히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한 손이 그의 궁전 벽에 글자를 써 내려가자, 벨사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문이 막혔다.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힘을 잃고 아이처럼 겸손해졌다.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의 처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거룩한 것들을 희롱해 왔다. 이제 그의 양심이 깨어났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할아버지의 역사는 벽에 쓰인 글씨처럼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바이블 에코*, 1898년 4월 25일.